

“세계한인비즈, 대학 이미지 드높여”

양오봉 전북대 총장 “지역 공익사업 적극 참여” 다짐 대회 성공 개최 협조해 준 대학 구성원에 감사 인사도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일간지와 방송사 기자들이 다수 참석하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전북대학교에서 열리게 해주신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님과 재외동포청 이상덕 청장님과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오봉 총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전북대학교가 세계 속에 전북대학교라는 이미지를 드높이고 정말 좋은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심게 해주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다”며, “전북대학교가 22살 청년 한상 청년에 스며들었다”라는 주제와 딱 맞게 대학에서 치루어졌다”고 자평했다.

양 총장은 “오늘 아침에도 애플랜타의 한인회 대표가 총장실에 오셔서 우

리 전북대학교 학생들과 미국 대학의 학생들과 인턴십 교류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북대학교가 이번 대회를 통해 정말 만나시는 분마다 정말 좋은 대학이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전북대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일을 넘어서 시키고자 하는 열기가 너무 넘쳐서 너무 감사하고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 대학교가 이번 대회를 하게 된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이번에 정말 세계적인 CEO 19분이 특강을 해주시고 1만3,050명의 학생이 특강을 들었는데, 학생이 CEO의 생생한 특강을 듣기가 쉽지 않



는데 정말 수준 높은 강의로 도전과 열정을 가진 성공스토리를 듣게 되어 더욱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생들도 훌륭한 CEO들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나도 저렇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큰 꿈을 갖게 해준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우리 한인 사업가 소유의 나이기 제조공장에 우리 전북대 학생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대회에 정말 많은 도민이 전북대학교를 찾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실 1만 5천 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이번 행사에 오신 것은 대회를 컨벤션 센터에서 하면 약 300불 정도의 등록비를 받는데 전북대학교에서 대회를 하게 되면서 장소를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요인의 한 가지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앞으로도 전북대학교에서는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가고자 하는 길에 늘 함께하고, 대학교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런 봉사를 하고 지역 공익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과 관련, 한 도민은 “이번 대회가 컨벤션 센터 하나 없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신념을 불어넣어 주며 도전하는 전북도와 이에 협력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전북대학교의 협력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며, 전북대학교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25일 교내 나래관(체육관)에서 졸업작품전인 '2024 VISION EXPO' 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대학·지역 상생 RISE-UP’

전주비전대, 졸업작품전 '2024 VISION EXPO' 개막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25일 교내 나래관(체육관)에서 졸업작품전인 '2024 VISION EXPO' 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동양외 8개 전북고교 교장 등 30여명의 외빈이 참석했다.

2024 VISION EXPO는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과정 학생들이 제작한 졸업작품 전시와 뷰티페스타, 태권도 퍼포먼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발굴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학기간 중 배우고 익힌 전공기술, 산업현장의 실무기술을 결합한 작품들을 개발,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RISE-UP VISION EXPO’라는 주제로 한 학협력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진행되는 이번 엑스포는 140여개의 작품이 전시되며, 우수 작품들을 선정하여 개막식 중 특허청장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새만금개발청장상 등 50여 개 주요 기관상 상을 수여했다. /김재훈 기자

컴퓨터정보과 수훈이와 아이들 팀(리자 외 4명, 지도교수 권승연)이 개발한 'AI 가상 쇼핑·피팅·추천 서비스' 작품이 특허청장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작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가상 환경을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대와 신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쇼핑하고 의류를 착용해보는 메타 쇼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생성형 AI 활용 3D 부케 생성과 가상쇼핑·피팅·추천 서비스’ 기능을 구현했다.

전주비전대학교 우병훈 총장은 “VISION EXPO는 학생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혁신 역량과 성과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동시에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학생들이 배운 전공지식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업계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 동판 제막식 개최

전주대학교(이하 전주대, 총장 박진배)는 지난 24일 전주대 진리관 로비에서 호남권 유일 주관대학으로 선정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의 사업단 구성을 알리는 동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번 제막식은 박진배 총장을 비롯해 권수태 교육부총장, 이영욱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 및 내외 귀빈과 학생들이 참석하여 사업단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주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지방 시대에서의 지역 가치 창출을 목표로 지역의 혁신 가치 창출과 개발을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를 융합한 교과목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참여대학인 경북대, 동국대, 한림대, 한남대와 학점 교류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Local C-nergy’ 융합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혁신과 상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학교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제99대 총리가 '2024년도 우에 소논문 콘테스트' 시상식을 위해 지난 23일 전주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유키오 日 전 총리, 전주대 방문

2024년도 우에 소논문 콘테스트 시상식 위해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제99대 총리가 '2024년도 우에 소논문 콘테스트' 시상식을 위해 지난 23일 전주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진리관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를 비롯한 하토야마 전 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법인 우에 관계자들과,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 및 콘테스트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그동안 공익재단법인 우에는 COVID-19 이전까지 중국에서 '우에'를 주제로 소논문 콘테스트를 진행해왔으나, 올해는 '우에' 소논문 콘테스트의 한국

에서 첫 시작을 전주대가 맡아 진행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5월 27일 '나에게 우에(友愛)란'이라는 주제로 전주대에서 특강을 진행했으며, 당시 하토야마 전 총리와 함께 방문한 공익재단법인 우에 소속 청년들은 전주대학교 학생들과 환경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논문 콘테스트에서 1등을 수상한 전주대 일본언어문화학과 박지웅 학생은 “교토대학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을 우에와 접목해 설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수상을 할 수 있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상을 계기로 한일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전주대 박진배 총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시상식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진정한 '우에'에 대해서 전주대 학생들이 깨닫게 된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는 전주대학교와 공익재단법인 소논문 콘테스트 뿐만 아니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일본 제99대 총리를 지냈으며, 한·일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과거 일본의 침략을 사죄하는 등 아시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업적을 통해 지난해 9월 전주대에서 명예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제1회 진로진학박람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우현)은 우리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제1회 정읍 진로진학박람회 및 정읍교육공동체 진로특강을 지난 26일과 28일 양일간 열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1회 정읍 진로진학박람회는 지난 26일 오전 9시 학산중학교에서 개최됐다.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시민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로 직업체험 및 과학발명체험, 대학 학과 체험의 부스 48개를 운영했다.

특히 고등학교별 교육과정 안내, 1:1 대입 대면상담,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및 고교학점제 이해, 진로상담의 진학 관련 총 32개 부스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정읍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학생 공연마당을 운영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로 축제의 장도 펼쳐졌다.

28일 오후 7시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광형 총장을 초청해 'AI 시대의 교육과 우리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로특강이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열린다. 특강을 통해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미래 사회의 모습과 달라질 인재상, 교육의 방향성 등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진로 설계에 대해 알아본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영어몰입형 학교 전국에 알린다

중등영어교육연구회 전국 시·도지회장, 전주 서곡중 방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운영하는 '영어몰입형 중점학교'를 전국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회장 김정기,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전국 시·도지회장 20명이 25일 영어몰입형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전주서곡중학교를 방문해 영어몰입형 수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영어몰입형 중점학교는 전북교육청이 올해 처음 추진한 정책으로 영어에 대한 노출과 사용 기회 확대로 학생들의 실용영어능력을 신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주서곡중은 영어뿐만 아니라 과학·사회·창의적체험활동 등의 과목을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협력해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스마트영어교실

구축, 원어민보조교사 증원 배치, 교원 연수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영어몰입형 수업의 성과와 학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만족도 조사 결과 교사의 수업 지도 만족도 '88.8%', 영어능력향상 만족도 '89.3%'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몰입형 수업을 통해 외국어 교사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영어에 많은 관심이 생겼으며 영어와 더 친숙해져서 좋았다고 응답했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영어몰입형 중점학교가 현장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학교, 국제학교에 버금가는 영어특화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올해 우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운영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교장 등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고위직 대상 하반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지난 25일 교육청 초조나라 시청각실에서 실시했다.

연수에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9월 1일 차 신규 고위직 발령자 및 상반기 미수 고위직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구성원의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 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 대응 관련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아 진행했다. /김재훈 기자

2025학년도 체육과목 실기평가 종목 확정

전북자치도교육청, 공개 추첨 실시... 축구·농구 등 2개 종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신규 임용 제2차시험 체육과목 실기평가 구기종목 선정을 위한 공개 추첨을 진행한 결과 축구와 농구가 최종 시험 종목으로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 추첨은 2025학년도부터 변경된 체육과목 실기평가 구기종목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5학년도 체육과목 실기평가 종목은 육상(60M허들), 수영(50M자유형), 체조(마루운동)가 필수 종목으로 사전

에 확정된 상태였으며, 이번 공개 추첨을 통해 축구와 농구가 추가로 선정됐다.

추첨 결과를 반영한 2025학년도 체육과목 실기평가 종목은 이날 10시 전북교육청 누리집(www.jbe.go.kr) 알람마당-고시/공고에 확정 공고했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공개 추첨이 체육과목 실기평가 항목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응시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원임용시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마을교육 활성화 현장서 해답 찾는다

지역과함께특별자문위,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서 현장 탐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5일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에서 제4회 지역과함께특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과함께특별자문위원회는 마을교육과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북 지역 마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탐방과 사례 공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타지역의 우수 마을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전북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했다.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는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을 통해 마을교육활동을 양성하고 다양

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위원들은 △순천의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발표 △센터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 논의 △순천 마을교육과정과 조곡동 마을교육 사례를 주제로 한 토의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전북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현장 탐방에 함께 참여한 전북 마을 교사들도 타지역의 마을교육 우수 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